

조 성 연
Seongyeon Jo

SPACE SO

조성연(1971~)은 자신의 일상 공간에서 함께 호흡해 온 사물들, 꽃이나 과일 등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이를 화면 안에 담는 정물 연작 프로젝트 still alive를 통해 '정물 사진'이라는 프레임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한다. 오래된 동네, 철거를 앞둔 건물, 버려진 가구, 손질되지 못한 나무들, 가로수와 도로의 보도블럭까지 그가 시선을 두고 골똘히 바라보는 대상들은 그의 프레임 속 정물의 대상이 된다.

최근 작가는 에디션을 가지는 사진 작품을 유니크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작가는 연출하여 촬영하는 과정, 촬영 후 사진에 등장하는 오브제들과 함께 공간에 설치하는 형식, 사진을 담는 프레임을 오브제로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의 복수성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연출된 정물 사진 속에 등장했던 실들이 프린트 된 사진의 공간 안과 밖, 사진의 전면과 이면을 넘나든다. 작품에 등장하는 색실-선들은 사진 속 이미지의 그림자처럼, 오래된 판자 위의 먼지처럼, 벽의 낙서처럼 사진의 일부처럼, 보는 이의 착시를 일으키기도 하고 프린트 위에 부조처럼 등장하고 또는 프레임 밖으로 늘어뜨려지고 조용히 흔들리며 사진 속 공간과 전시장을 연결시킨다.

Seongyeon Jo (b. 1971) meticulously observes objects that have shared her everyday space—such as flowers and fruits—and captures them in her still-life photography series still alive. Through this project, she contemplates and explores the concept of "still-life photography." Her subjects range from old neighborhoods and buildings awaiting demolition to abandoned furniture, untrimmed trees, roadside blocks, and street pavements—all elements that draw her gaze and become the focal points of her photographic frame.

Recently, the artist has been working on making her photographic works unique. In fact, she has long been engaged in eliminating the multiplicity of photography by various means—through directing the photographic process, installing photographed objects within physical spaces, and extending the photographic frame into an object itself. The threads that often appeared in her still-life photographs now transcend the piece of image, moving between the front and back of the photograph, inside and outside its frame. The colored threads and lines in her works resemble shadows in the image, dust on old wooden panels, or graffiti on walls. They create optical illusions, appear as reliefs on the printed surface, extend beyond the frame, and quietly sway—connecting the photographic space with the environment.



지극히 주관적인 ()

2024

pigment print, stitches

23 x 17.5cm (framed 25 x 19.5cm)





지극히 주관적인 ()

2024

pigment print, stitches

35.5 x 26.5cm (framed 37.5 x 28.5cm)



지극히 주관적인 ()

2024

pigment print, stitches

35.5 x 26.5cm (framed 37.5 x 28.5cm)



지극히 주관적인 ()

2024

pigment print, stitches

23 x 35cm (framed 25 x 37cm)



지극히 주관적인 ()

2024

pigment print, stitches

39 x 25cm (framed 44 x 27cm)



지극히 주관적인 ()

2024

pigment print, stitches

35.5 x 23.5cm (framed 45 x 25.5cm)



지극히 주관적인 ()

2024

pigment print, stitches

35.5 x 26.5cm (framed 37.5 x 28.5cm)





조성연은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에서 그가 골똘히 바라본 풍경과 정물에 대한 특유의 사진적 접근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가 대상과 관계 맺는 태도에서 먼저 드러나는데, 그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응시하고 있고 또 그것과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지에 대해 묻게 한다. 그의 사진을 보면, 사진은 어떤 찰나의 순간을 기록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처럼 들리는지 스스로 되묻게 한다. 나는 그가 찍은 사진이, 적어도 지금 우리 앞에 펼쳐 있는 이 사진들이, 어떤 순간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내막을 나는 상상했고, 이 사진에는 아주 많은 시간의 순간들이 먼지처럼 두껍게 쌓여 있으며 그 “오래된 형태”를 골똘히 바라보는 사람의 행위가 흔적으로 남아 있다. 결국 저 사진 안에 담긴 장면은 연속하는 시간의 일부를 기록으로 떼어온 것이기 보다, 그 연속해 온 현실의 시간과 상관 없이 (어떤 홀연한 순간에) 제 스스로 현존하는 마술적 형태임을 환기시킨다. 조성연은 그것을 대상과의 “교감”이라고 말한다.

안소연 (미술비평가)

개인전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 전시 서문 <그렇게 골똘히 뭔가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무대 위 레코드판, 극락조, 공

2021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붉은 공, 나무토막, 삼각형, 식물의 기묘한 만남

2021

archival pigment print

60 x 120cm



불안정한 균형

2021

archival pigment print

150 x 120cm





골목 안 회색대문과 벽돌

2021

archival pigment print

21 x 16.8cm

나는 그의 사진에서 종종 어떤 이의 행위를 목격했던 것 같다. 그가 오랫동안 몰두해 왔던 정물 사진은 궁극의 집중과 긴장을 불러올 정도로 대상에 대한 골똥한 시선이 남달랐지만, 그 시선에 대한 신뢰가 사진 찍힌 대상과 삶을 공유하는 일련의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진에서 알게 된다. 예컨대, 《지고 맺다(Arranging Life)》(2018)에서 그는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제작한 사진 연작을 소개했는데, 그가 경작한 식물의 시간에 대한 기록에 가까워 보였다. 그 이전부터 조성연은 스스로 발을 가꾸고 식물을 경작하는 행위와 어떤 대상에 대한 사진 찍는 행위를 중첩시켜, 삶 속에 출현하는 일련의 형상들에 대한 바라보기의 사유를 지속해 왔다. 그랬던 그가, 최근에는 직접 경작하는 일을 두고 일상에서 발견하는 풍경과 대상에 대한 사유 자체로 경작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소연 (미술비평가)

개인전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 전시 서문 <그렇게 골똥히 뭔가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작고 유연한 움직임

2021

archival pigment print

60 x 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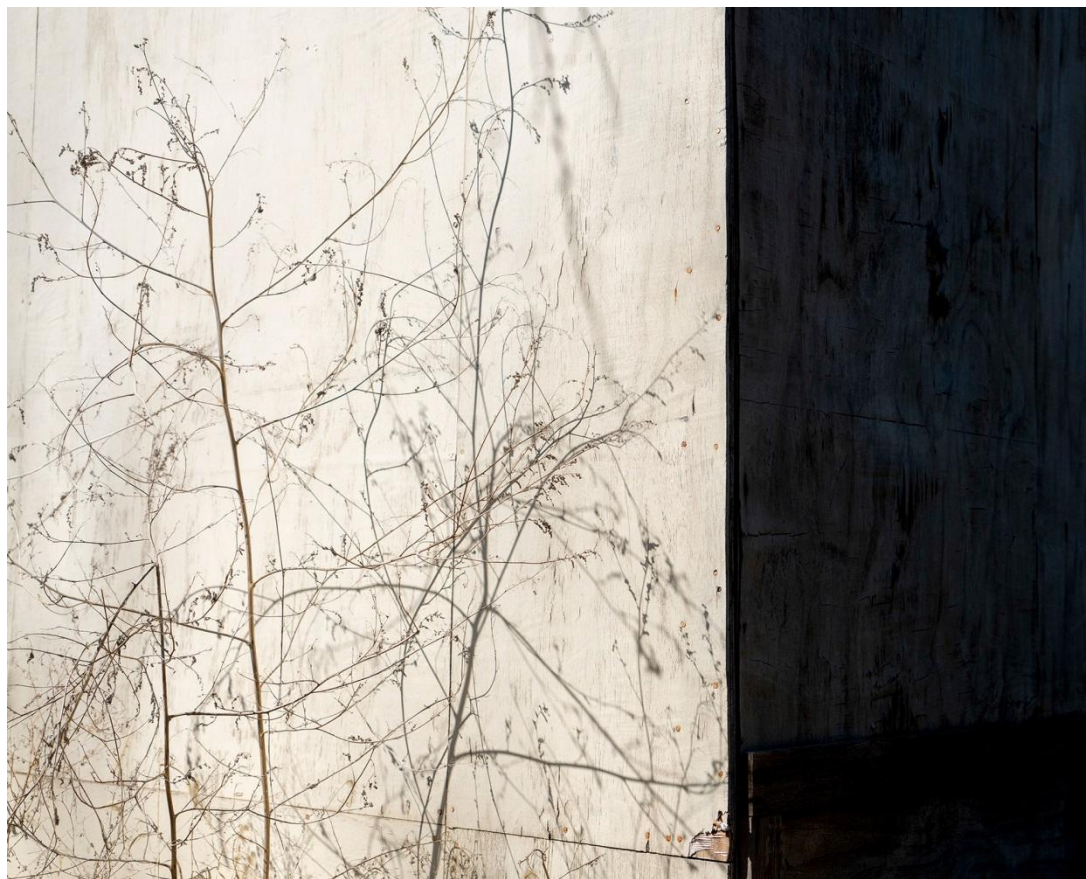


마른가지, 실, 마치 거미줄처럼

2021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어떤 오후

2021

archival pigment print

16.8 x 21cm





Memento

2022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시간은 흐르지 않고 쌓인다

2021

archival pigment print

100 x 80cm



JO SEONGYEON

20년 전 본지 인터뷰에서 조성연은 작가란 “자기 의지를 초월한 어떠한 힘에 이끌리는 자”라고 말했다. 20년 전에도 피사체가 가진 시간의 겹을 포착하려고 했던 그다. 피사체에 대한 관심이 가시광선의 막을 투과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조성연 작가는 그 복잡함을 가까이 끌어안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복잡함이란 순환을 온몸으로 맞아들이는 공통세계의 감각이다. 그간 지고 맺고, 다시 태어나는 것들의 이면을 화면에 포착해온 작가는 최근 개인전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풍경”을 선보였다. 작가는 매일 일상을 조금씩 일구고, 그것을 순간순간 포착해내는데, 그것은 ‘아직’ ‘정지’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작가가 사진으로 담고자 했던 과정은 사물, 기물, 식물로써의 비인간의 초상 '재현'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연결하는 행위를 '환기'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환기는 단순히 소재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나, 연구와 작업,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생태적 태도에서 시민으로서 예술가, 예술가로서 시민 그리고 세계내 존재로서의 인간과 비인간의 진동하는 공존의 취약성과 애매함에서 '존재론적 전회'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생태적 과정이 중요해진다. '존재론적 전회'는 인류학에서 세계가 전체로 존재하고, 인간 중심의 이론적 인식적 접근하는 것에서 인간과 비인간, 사물, 타자, 네트워크 등 수많은 존재들 사이에 인간의 삶과 삶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존재론적 전회는 단순히 다르게 보거나 생각하기가 아니라, 결국 내개로 돌아오는 반성성, 기존에 전제된 전형적 이론이 아니라 실천과 사유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사진 속 비인간과 시공간은 인식의 전환을 위한 대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결국 나란 존재의 진동하는 사유와 실천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기시감>에서 시작해 <사물의 호흡>, <발아발화>, <stillalive>, <지고 맺다>,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까지 관통하는 존재론적 전회를 마주하고 삶과 작업에서 그것을 연결하려는 생태적 과정 속 시공간들이다.

채은영 (임시공간 디렉터)

<존재론적 전회를 연결하는 과정>, 월간미술 2021년 11월



날카로운 붉은 철문

2020

archival pigment print

120 x 80cm



팅빈흔적

2021

archival pigment print

120 x 80cm









지고맷다_잎채소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지고맷다_당근꽃, 참명아주, 소리쟁이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지고맷다_쑥갓꽃, 지칭개, 명아주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지고맷다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지고맷다

2019

archival pigment print

130 x 104cm



지고맷다_당근 꽃과 들풀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00 x 80cm



지고맷다_풀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50 x 120cm





still alive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00 x 80cm



still alive

2018

archival pigment print

100 x 80cm



still alive

2015-2016

archival pigment print,

50 x 40cm



still alive

2015-2016

archival pigment print

50 x 40cm



still alive

2015-2016

archival pigment print

50 x 40cm



b. 1971

Educations

1999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사진전공 졸업

1994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Selected Solo Exhibition

2021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 스페이스 소, 서울

2018 지고맷다, 스페이스 소, 서울

2016 발아발화II, b컷 갤러리, 서울

2012 발아발화, 가비 갤러리, 서울

2012 조성연 전, 프로젝트 카페우민, 우민아트센터, 청주, 경기도

2009 사물의 호흡, cola갤러리, 서울

2004 花景, 예맥화랑, 서울

2004 갤러리현대 원도우 갤러리, 서울

2001 청년작가 기획, 아문아트센터, 대구

2001 헬로우아트 갤러리, 서울

2000 상상하기, 서남미술관 포토스페이스, 서울

1999 기시감(既視感), 담 갤러리,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4 노 시그널,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23 쿨라 링: 이야기 군도, 팩토리2, 서울

2023 봄의 제전, 대구 신세계갤러리, 대구

2022 밤이 선생이다, 우란문화재단, 서울

2022 비타노바_새로운 삶, 인천아트플랫폼, 서울

2022 낮설고 낯선, 해찬솔공원작은도서관(임시공간), 인천

2022 5 FIVE Vol.1, 스페이스 소, 서울

2022 옆으로 나누는 대화, 임시공간, 인천

2022 Books and Things: 물아일체, 우란문화재단, 서울

2021 감각의 숲, 우양미술관, 경주, 경상북도

2021 식물 X 사회, 큐레이터의 아뜰리에49, 서울

2020 일상의 향유, 온양민속박물관, 아산, 충청북도

2020 6인의 시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2020 지고 맷다, 롯데백화점 본점 예비뉴엘, 서울

2019 일상의 공간_너와 집, 온양민속박물관, 아산, 충청북도

2018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 대구미술관, 대구

2018 예술가의 정원, 닷 미술관, 광주, 경기도

Collections

주 센다이 한국 총영사관, 센다이 일본

닷 미술관, 경기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SK 가스, 판교